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 배경에 따른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

변 상 우[†]

서울예술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의 관점에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수준과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에 따라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평가와 역전이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담자 382명에게 사회계층을 두 가지로 조작한 가상의 내담자의 접수면접지를 제시하여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이원분산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에 따라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사회계층 편향성이 높은 상담자 집단은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 집단에 비해 내담자를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내담자에게 지배 및 적대 역전이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둘째,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에 따라 상담자의 내담자 평가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내담자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지배’ 역전이 반응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계층 편향성이 높은 상담자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에 비해서 중산층 내담자가 하류층 내담자보다 지배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상담, 편향성, 사회계층 편향성, 내담자 평가, 역전이

* 본 연구는 변상우(2018)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변상우, 서울예술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1

Tel : 031-412-7487, E-mail : psyp@seoularts.ac.kr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 지하철 타는 놈들의 특유의 냄새.”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에 등장하는 박사장의 대사이다. 냄새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지만, 평소에 그가 특정 사회계층에 대해 지니고 있는 차별적 시선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내재된 편향성은 알게 모르게 개인의 생각, 태도 및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사회문화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상담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지닌 편향성이 상담이라는 전문적 영역과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개입에 있어서 상담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지향과 임상적 경험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의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국의 상담자들은 사례개념화에 있어서 내담자의 당면 문제, 주호소 문제, 내방 계기 등과 같은 기초적 요소와 개인내적 및 대인관계적 요소인 심층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이러한 경향성은 인간 경험과 문화를 보편성과 동질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에틱(etic) 접근에 기초하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을 최소화시킨다. 현재 우리나라 상담자들이 주로 훈련 받고 사용하는 주된 상담 접근은 서구 사회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WASP(White-Anglo-Saxon Protestant)로 일컬어지는 백인 중산층의 문화적 가치에 입각하고 있다(Sue & Sue, 1977). 백인 중산층의 주요 가치는 개인주의, 자율성, 책임 등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구 중심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결정하도록 장려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요구한다(Sue & Sue, 2003). 이러한 관점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삶의 주체성을 부여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어려움이 외부 환경이나 구조로부터 파생되고 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고통 받는 이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 태도를 불러올 가능성 또한 있다(Ridley, 2005). 즉,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유발된 내담자의 무력감, 우울, 열등감 등을 동기 부족과 성격 특성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바라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더 많은 개인적 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1960년대 미국에서는 기존의 개인 중심적 상담 접근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고조되어 다문화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e & Sue, 1977).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사회, 정치, 역사 및 경제적 맥락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러한 배경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내담자 문제 형성을 이해할 것을 추구한다(APA, 2003). 즉, 내담자가 지닌 고유한 사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능한 상담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에 대한 편향성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편향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절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Sue & Sue, 2003). 이와 같은 문화적 민감성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것으로, 다문화 상담 접근에서는 다문화상담 역량(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역량에서 거듭 강조하는 ‘자기 인식’은 문화와 사회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자의 정체성과 이로 인한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18)에도 다문화 상담역량과 관련하여 내담자의 다양성 항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상담심리사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는 인종과 민족을 넘어 젠더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계층, 장애, 연령, 종교 등을 포함하는 다양성(diversity)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Choudhuri, Santiago-Rivera, & Garrett, 2012).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바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문화 상담에서는 사회계층을 인종과 젠더처럼 중요한 문화적 배경으로 간주하며(Pope-Davis & Coleman, 2001), 내담자의 다양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바라본다(D'Andrea & Daniels, 2001). 실제로 사회계층은 인간 생활의 전반에 영향 미치며 아동(Evans, 2004) 및 성인(Lund et al., 2010)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비만(Zhang & Wang, 2004), 뇌 구조(Raizada & Kishiyama, 2010), 약물남용(Luthar, 2003), 심미적 선호(Snibbe & Markus, 2005), 말투(Jensen, 1997), 양육방식(Lareau, 2011), 입학 시 학업 준비도(Lee & Burkam,

2002), 학업 성취(Reardon, 2011, Yeung & Conley, 2008), 경력개발(Diener & Ali, 2009), 직업적 성취(Blustein, 2006) 등과 광범위하게 관련된다. 또한 사회계층은 기본적인 의식주,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재산 규모, 삶의 기회 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애초에 사회계층은 집단 간 갈등현상이나 분배 문제를 기술하기 위한 사회학적 용어로 만들어졌으나(Lucal, 1994), 최근 들어 개인의 가치관, 태도 및 신념에 영향 미치는 심리내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계층은 ‘물질적 자원 수준에 기반한 지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변상우, 2018a). 사회계층이 지닌 전방위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은 의존성, 비관주의, 낮은 자존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담자의 심리내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경제적 맥락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iu, Soleck, Hopps, Dunston, & Pickett, 2004). 계층차별(classism)은 개인의 편향성에서 비롯되며, 사회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또는 차별을 의미한다(Smith, 2005). 편향성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나 현재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상담자 역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정치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므로(Arredondo et al., 1996; Sue & Sue, 2003), 편향성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발표된 질적 연구들은 사회계층이 상담관계에 영향 미칠 수도

1) 본 논문에서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함축하는 성(Gender)을 언급할 때는 ‘젠더’로, 생물학적인 성(Sex)을 의미할 때는 ‘성별’로 표기할 것이다.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Balmforth, 2009; Cook, 2017; Cook & Lawson, 2016; Smith, Li, Dykema, Hamlet, & Shellman, 2013; Thompson, Cole, & Nitzarim, 2012; Thompson et al., 2015). 그러나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가상 내담자의 사회계층을 조작하여 상담자 반응이나 평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Garb, 1997; Hutchison, 2011; Smith, Mao, Perkins, & Ampuero, 2011; Thompson, Diestelmann, Cole, Keller, & Minami, 2014).

한편 편향성은 인지와 정서로 구성되기 때문에(Dovidio, Brigham, Johnson, & Gaertner, 1996; Fiske, 1998; Mackie & Smith, 1998), 상담자의 편향성은 내담자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에 반영되기도 한다. 의료진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편향성이 전문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내담자 진단, 증상 심각성 판단, 예후, 권장 치료 방식, 치료 기간, 치료 성과 예측 등을 주로 측정하였다(Lopez, 1989; Woo, Ghoreyeb, Lee, Sangha, & Richter, 2004). 이는 전문적 판단과 평가와 같은 인지적 영역에서 편향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상담자들은 사회계층이 낮은 내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후를 나타낸다고 보거나 심리상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Franklin, 1986; Lott, 2002, Smith, 2005). 이처럼 인지적 편향성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게 만든다. 또한, 편향성은 상담자의 내부 정서인 역전이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역전이 반응은 상담자의 회피하기, 내담자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동조,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Wilson, Lindy, &

Raphael, 1994) 상담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러 학자들이 밝혀낸 역전이 촉발요인(Perez-Foster, 1999; Lane, 1986; Myers, 1986) 중에는 내담자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 과도 관련성이 있다(Rosenberger & Hayes, 2002). Perez-Foster(1999)는 이를 문화 역전이(cultural countertransference)라고 칭하였다. 상담자는 사회계층이 낮은 내담자에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Javier & Herron, 2002, p. 162). 즉, 빈곤한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측은하게 여기고, 사회를 비난하고,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등의 역전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담자의 역전이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내담자를 비난하고 사회를 두둔하는 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Javier & Herron, 2002).

이러한 결과들을 본다면 내담자의 사회적 정체성인 사회계층은 상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화 경험에 따라 인지적 및 정서적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로 사회계층이 점점 더 공고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변상우, 2018a), 한국의 상담자들은 사회계층의 영향과 그로부터 파생된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부 사람들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여러 사회계층이 상담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에 대한 고찰을 촉구하게 만든다.

그러나 국내에서 상담자 편향성을 다룬 연

구는 내 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 연구들조차 주제가 성고정관념(최은영, 2002), 동성애 편향성(박정은, 2013; 서영석, 이정립, 강재희, 차주환,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계층과 관련된 상담자 편향성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한 개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실제 상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에 따라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 배경은 내담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은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예비연구와 본 연구에서 각각 31명과 382명의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여 상담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 3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382명이 참여했으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류된 29부의 자료를 제외한 총 353부의 자료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

되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은 34명(9.6%), 여성은 318명(90.1%), 기타는 1명(0.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8.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학력분포는 석사졸업 248명(70.3%), 박사수료 39명(11.0%), 박사과정 21명(5.9%), 박사졸업 20명(5.7%), 석사수료 15명(4.2%), 학사졸업 10명(2.8%)의 순이었다. 또한 상담자의 종교는 개신교 124명(35.1%), 무교 123명(34.8%), 천주교 72명(20.4%), 불교 30명(8.5%), 기타 4명(1.2%) 순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 185명(52.4%), 비혼 161명(45.6%), 기타 7명(2.0%) 순을 보였다. 상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을 측정하였다. 우선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원 이하 17명(4.8%), 151~250만원 63명(17.8%), 251~350만원 68명(19.3%), 351~450만원 63명(17.8%), 451만원~600만원 76명(21.5%), 601~1000만원 57명(16.1%), 1000만원 이상 9명(2.5%)이었다. 상담자의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의 경우(1단계: 최하위, 10단계: 최상위), 1단계 1명(0.3%), 2단계 6명(1.7%), 3단계 18명(5.1%), 4단계 40명(11.3%), 5단계 70명(19.8%), 6단계 83명(23.5%), 7단계 90명(25.5%), 8단계 38명(10.8%), 9단계 5명(1.4%), 10단계 2명(0.6%)이었다.

측정도구

가상의 접수면접지

본 연구는 상담자가 지닌 사회계층 편향성에 따른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에 관한 것이나 사회계층 수준이 다른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를 직접 관찰하며 이들이 내담자에 대한 반응 양상을 조사하는 것은 현

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상의 내담자에 대해 묘사한 접수면접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두 가지 양상의 내담자 접수면접지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 내담자는 선행연구(민경환, 1989; Javier, Herron, & Yanos, 1995; Lott, 2002; Smith, Allen, & Bowen, 2010)에서 밝혀진 하류층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향성 즉, 매너가 없고, 시끄럽고, 무식하고, 동기가 없는 등과 같은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내담자는 위축되고 우울한 성향이 나타나도록 묘사하였다. 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심리사 1급 자격자 10명의 집단 논의를 통해 접수면접지에 나타난 내담자의 주호소문제와 사회계층 정보의 현실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 및 남편의 직업의 구체성, 집 주소 표기방식, 자가 여부 표시 등의 측면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두 개의 예비 접수면접지가 실험자극으로 충분히 현저한지, 생생한지, 그리고 제시된 사회계층 정보가 적절한지를 상담자 31명(경력 3년 미만의 초심상담가 17명, 경력 5년 이상의 상담가 14명)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기술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접수면접지를 최종 선정하였고 이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가상의 접수면접지는 동일한 내담자의 사회계층을 중산층과 하류층으로 다르게 제작해서 참여자들에게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계층은 내담자의 직업(주민센터 공무원-식당 보조), 학력(대졸-고교중퇴), 남편의 직업(회사원-무직), 남편 학력(대졸-고졸), 그리고 집 주소(목동-독산동), 주거형태(자가-월세)를 다르게 조작하였다. 그 외의 정보(가족구성, 주호소내용)는 모두 동일하였다.

계층차별 태도 척도(Classism Attitudinal Profile, CAP)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Colbow 등(2016)이 개발한 Classism Attitudinal Profile(CAP)을 사용하였다. CAP의 구성 문항들은 사회계층 및 계층차별 문헌과 Rice 등(2016)의 사회계층 세계관 발달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문항 개발은 Liu(2011)가 제안한 하향 및 상향 계층차별 구성개념과 일치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 태도 및 행동들이 문항에 반영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원저자 Colbow로부터 CAP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연구자가 먼저 CAP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하였다. 역번역된 척도와 원척도를 대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상황에 적합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상담심리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번역된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약물이나 술 문제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과격하다’ 등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계층차별적 신념 등에 대하여 묻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차별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Colbow 등(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상향계층차별 .80, 하향계층차별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0이었으며, 하위요

인별 내적 합치도는 상향계층 차별 .88, 하향 계층 차별 .89였다.

상담자 반응 양식 질문지(Counselor Reaction Form, CRF)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담자 반응 양식 질문지(CRF)를 사용하였다. CRF는 아날로그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을 조합하여 Howell과 Highlen(1981)이 개발하고 Tryon(1999)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미정(2002)이 번역하고 사용한 문항을 활용했으며, 원본의 의미에 보다 충실하고 본 연구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하도록 지시문과 일부 문항은 연구자가 수정하였다(예: 이 내담자는 앞으로의 상담을 통해 이익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 내담자는 앞으로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이 내담자는 상담에 협조적일 것 같나요?’, ‘이 내담자에게 인간적인 호감이나 끌림이 있나요?’, ‘이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심각한가요?’ 등 내담자에 대한 호감도를 반영하는 문항과 임상적 인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가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역채점 문항: 1번 및 4번). 본 연구에서는 우사라, 유성경(2017)의 방식과 같이 하위 영역에 따른 구분 없이 전체 총점을 사용하였다. 우사라, 유성경(201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4이었다.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단축형 검사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

상담자의 역전이를 측정하기 위해 Kiesler(1987)이 개발하여 김창대, 김수임, 강민철, 김영근(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의 단축형(강민철, 2014)을 사용하였다. IMI-C의 원판인 IMI는 개인의 내현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내담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이 상담자에게 어떤 정서를 유발시키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IMI는 역전이 반응의 측정에 있어서 유용한 척도로 보고되고 있다(Dougall & Schwartz, 2011; Schwartz, Smith, & Chopko, 2007; Schwartz & Wendling, 2003). IMI-C 단축형은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나’라는 단어를 ‘내담자’로 제시하였다. IMI-C 단축형은 표 4와 같이 네 가지 하위척도인 지배, 우호, 순종, 적대로 구성된다. ‘지배’ 하위척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며,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에게 휘둘린다고 느낄 것 같다). ‘우호’ 하위척도는 부드럽고 자상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타인에게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성향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다). ‘순종’ 하위척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며 고분고분한 자세를 취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느낄 것 같다). ‘적대’ 하위척도는 타인을 비판하며 냉대하는 성향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와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것 같다(강민철, 김수임, 2016). 각 7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김창대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지배 .73, 우호 .75, 순종 .72, 적대 .78이었고, 강민철(2014)이 사용한 단축형은 .80, .85, .73,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2, .82, .41, .51이었고, 전체는 .66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

내담자 평가나 역전이 반응에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Crowne과 Marlowe(1960)이 개발한 33개 문항의 척도를 이주일(1988)이 13문항의 단축형으로 간추린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역채점 문항은 1, 3, 4, 6, 7, 9, 10, 13번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가능하도록 구글 설문 기능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에 앞서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 의사에 대한 항목에 응답과 연구 동의서 서명을 한 후 설문

에 임하였다. 설문지 초반의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에서는 ‘상담자의 상담 몰입 경험과 그 영향’을 위한 연구라고 소개하였으며, 본래 연구목적은 질문지 작성이 종료된 후 사후 설명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연구목적이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참여자의 역할 기대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응답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절차였다. 가상의 내담자에 대한 접수면접지는 구글 설문지의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에게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상담자들의 사회계층 편향성(CAP) 점수를 평균보다 1표준편차 이상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사회계층 편향성 고 집단, 평균보다 1표준편차 이상 낮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사회계층 편향성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내담자 평가(CRF)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은 내담자의 사회계층 비네트(중산층, 하류층), 사회계층 편향성 집단(고집단, 저집단)이었으며, 종속변인은 내담자에 대한 평가(CRF)이었다. 이어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역전이 반응(IMI-C)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된 경우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어떠한 종속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 설계

단계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내담자 평가나 역전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변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 변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서로 간의 사회적 바람직성과 내담자 평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r=.082, p>.05$), 역전이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순종($r=-.039, p>.05$), 우호($r=.110, p<.05$), 적대($r=-.114, p<.05$), 지배($r=-.115, p<.05$)]에서도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아(Cohen, 1988) 두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분석 시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결 과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내담자 평가 차이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내담자 평가(CRF)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내담자 평가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내담자의 사회계층 비네트(중산층, 하류층), 사회계층 편향성 집단(고집단, 저집단)이었으며, 종속변인은 내담자 평가 총점이었다. 분석을 시행하기 전 오차 분산의 동질성 가정 검증을 위해 Levene's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이 확보되었다($F(3, 115)=1.59, p>.05$). 표 1에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 조건 별로 제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담자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의

표 1.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내담자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N=119)

내담자 사회계층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내담자 평가 M(SD)
중산층	고집단 (n=28)	22.82(4.27)
	저집단 (n=30)	25.40(4.50)
	전체 (N=58)	24.16(4.54)
하류층	고집단 (n=27)	22.96(3.83)
	저집단 (n=34)	24.65(4.90)
	전체 (N=61)	23.90(4.50)
전체	고집단 (n=55)	22.89(4.02)
	저집단 (n=64)	25.00(4.70)
	전체 (N=119)	24.03(4.51)

사회계층 편향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15)=6.84, p<.05$). 그러나 내담자 평가에 있어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115)=.14, p>.05$). 또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15)=.30, p>.05$). 이 결과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담자 집단이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 집단보다 내담자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은 내담자

표 2.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내담자 평가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N=119)

분산원	SS	df	MS	F	부분 η^2
내담자의 사회계층(A)	2.76	1	2.76	0.14	.001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B)	134.10	1	134.10	6.84*	.056
A*B	5.91	1	5.91	0.30	.003
오차	2254.04	115	19.60		
합계	2394.92	118			

* $p < .05$

평가의 변량 중 약 5.6%를 설명한다.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역전이 반응 평가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역전이 반응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은 내담자의 사회계층(중산층, 하류층),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집단(고집단, 저집단)이었으며, 종속

변인은 역전이 반응(IMI-C 하위요인: 적대, 지배, 순종, 우호)이었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가정 검증을 위해 Box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게 나타나 이후 분석이 가능하였다($M=36.60, p > .05$). 표 3에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 조건 별로 제시하였고, 분산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역전이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81, $F(4,112)=$

표 3.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역전이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N=119)

내담자 사회계층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적대 M (SD)	지배 M (SD)	순종 M (SD)	우호 M (SD)
중산층	높음 (n=28)	26.86 (5.52)	33.68 (4.62)	25.39 (5.44)	21.21 (6.57)
	낮음 (n=30)	24.33 (5.90)	26.67 (5.11)	23.70 (5.23)	22.57 (5.96)
	전체 (N=58)	25.55 (5.81)	30.05 (5.99)	24.52 (5.35)	21.91 (6.24)
하류층	높음 (n=27)	27.33 (4.58)	30.52 (4.54)	25.00 (4.10)	22.07 (4.55)
	낮음 (n=34)	25.29 (4.40)	27.47 (6.64)	24.59 (4.72)	22.79 (7.63)
	전체 (N=61)	26.20 (4.56)	28.82 (5.96)	24.77 (4.42)	22.48 (6.41)
Total	높음 (n=55)	27.09 (5.04)	32.13 (4.81)	25.20 (4.79)	21.64 (5.63)
	낮음 (n=64)	24.84 (5.14)	27.09 (5.94)	24.17 (4.94)	22.69 (6.85)
	전체 (N=119)	25.88 (5.20)	29.42 (5.98)	24.65 (4.88)	22.20 (6.31)

표 4.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역전이 반응의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N=119)

독립변인	Wilks의 람다	자유도	F	부분 η^2
내담자의 사회계층(A)	.97	4/112	0.80	.028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B)	.81	4/112	6.59***	.190
A*B	.96	4/112	1.14	.039

*** $p < .001$

표 5.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에 따른 역전이 반응 종속변인들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N= 119)

분산원	종속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부분 η^2
내담자의 사회계층(A)	적대	15.24	1	15.24	.58	.005
	지배	40.97	1	40.97	1.42	.012
	순중	1.81	1	1.81	.075	.001
	우호	8.72	1	8.72	.21	.002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B)	적대	153.67	1	153.67	5.86*	.048
	지배	746.89	1	746.89	25.82***	.183
	순중	32.69	1	32.69	1.36	.012
	우호	31.70	1	31.70	.78	.007
A*B	적대	1.73	1	1.73	.07	.001
	지배	115.97	1	115.97	4.01*	.034
	순중	12.11	1	12.11	.50	.004
	우호	2.95	1	2.95	.07	.001
오차	적대	3017.15	115	26.24		
	지배	3325.99	115	28.92		
	순중	2761.21	115	24.01		
	우호	4653.49	115	40.47		
합계	적대	3184.35	118			
	지배	4222.99	118			
	순중	2807.18	118			
	우호	4697.16	118			

* $p < .05$, *** $p < .001$

6.59, $p < .001$]. 하지만 내담자의 사회계층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Wilks' Lambda=.97, $F(4,112)=.80$, $p > .05$]. 또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및 내담자의 사회계층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Wilks' Lambda=.96, $F(4,112)=1.14$, $p > .05$]. 이 결과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담자 집단과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 집단 간 내담자에게 보이는 역전이 반응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은 역전이 반응의 변량 중 약 19.0%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에 해당하는 각각의 종속변인(적대, 지배, 순종, 우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5에 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인 적대의 경우,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15)=5.86$, $p < .05$]. 반

면, 내담자의 사회계층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15)=.58$, $p > .05$].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 및 내담자의 사회계층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15)=.07$, $p > .05$]. 이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담자 집단이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 집단보다 내담자를 더욱 적대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편향성 고집단 $M=27.09$ $SD=5.04$, 편향성 저집단 $M=24.84$ $SD=5.14$).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은 역전이 적대 반응의 변량 중 약 4.8%를 설명하였다.

종속변인 지배의 경우,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15)=4.01$, $p < .05$]. 또한, 상담자 사회계층 편향성의 주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15)=25.82$, $p < .001$]. 그러나 내담자의 사회계층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15)=1.42$, $p > .05$].

이는 사회계층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담자 집단이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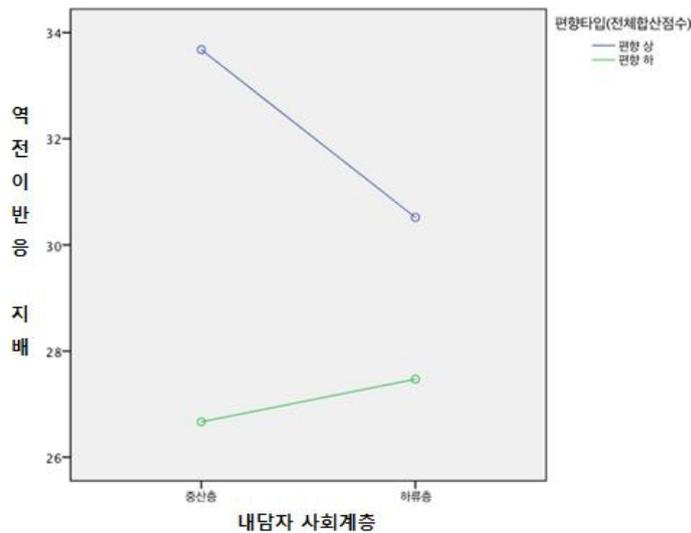


그림 1. 역전이 반응 '지배'에 대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의 효과

자 집단보다 내담자를 더욱 지배적인 사람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편향성 고집단 $M=32.13$ $SD=4.81$, 편향성 저집단 $M=27.09$ $SD=5.94$). 특히, 내담자의 사회계층이 하류층일 때보다 중산층일 때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중산층일 때 집단 간 평균 차이: 7.01, 하류층일 때 집단 간 평균 차이: 3.05). 역전이 지배의 변량 중 약 18.3%를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이, 약 3.4%를 상담자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의 상호작용이 설명하였다(그림 1 참고).

마지막으로, 역전이 하위 영역인 순종과 우호의 경우 내담자의 사회계층 주효과,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의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이 내담자에 대한 평가와 역전이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를 사회계층 편향성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과 내담자 사회계층 배경에 따른 내담자 평가 및 역전이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에 있어서 상담자가 가진 사회계층 편향성의 주효과가 각각 발견되었다. 즉, 사회계층 편향성이 높은 상담자 집단은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 집단에 비해 내담자에 대한 평가를 더 부정적으로 하며, 역전이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편

향성이 정확한 정보수집 없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으며(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 사회계층 편향성이 권위주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변상우, 2018b).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비판적 잣대를 적용하며(하정희, 2015),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 1999; Altemeyer, 1996; Bäckström & Björklund, 2007; Dru, 2007),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은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상담자의 인지적(내담자 평가) 및 정서적 측면(역전이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편향성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평가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Rogers(1980)가 강조한 내담자에 대한 비판단적, 비평가적 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상담자의 내담자 평가 및 역전이 반응에 있어서 내담자 사회계층 배경의 주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은 상담자의 내담자 평가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사회계층이 낮은 내담자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오래된 통념, 즉 심리상담에 잘 오지 않으며, 상담을 받아도 별로 도움이 안되며, 심지어 조기 종결이 많다는 인식(Graff, Kenig, & Radoff, 1971; Heitler, 1973)과는 상반된다. 오히려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에 따라 상담자나 정신보건 종사자들의 임상적 평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Bamgbose, Edwards, & Johnson, 1980; Settin & Bramel, 1981; Umbenhauer & DeWitte, 1978)과 일치한다. 즉,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이유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 간의 불일치된 결과는 상담자 표집의 크기로부터 기인했을 수 있다(Garb, 1997). 또 다른 가정은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가상의 접수면접지에서 내담자의 사회계층 정보보다는 호소문제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사회계층 배경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경향성은 내담자의 내방사유, 주소소와 당면문제, 대인관계 양상, 가족역동 등을 중심으로 사례개념화를 해나가는 국내 상담자들의 경향성(손은정, 이혜성, 2002; 이명우 외, 2005)과 상담자 교육의 영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세 번째 이유는 내담자 접수면접지에 제시된 사회계층 정보의 현저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을 직업, 학력, 집주소 등을 통해 조작하였는데, 지면에 기술된 정보나 제시 방식이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을 유도하기에 충분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즉, 단순히 가난하다고 지각되는 사람들보다 ‘정부 지원 대상자’라고 기술된 사람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다는 선행 연구(Smith, 1987)를 고려한다면, 사회계층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복장, 외양 등 사회계층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시각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문으로 기술된 점 역시 현저성을 낮추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정은 사회편향성이 지닌 주효과로 인하여 편향성이 높은 경우, 내담자의 사회계층과 같은 배경 정보는 고려하지 않고 내담자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이 역전이 반응을 촉발한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정서를 유발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계층 편향성이 높은 상담자들은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들에 비해서 내담자에 대해 ‘지배’와 ‘적대’의 역전이를 보다 많이 경험하였다. 즉, 사회계층 편향성이 높은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휘둘리며 통제 받는다고 느끼거나(지배), 내담자가 거리를 두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느낌(적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사회계층 편향성이 내담자에게 ‘우호’, ‘순종’과 같은 긍정적 역전이 반응이 아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역전이에 대한 현대적 관점은 내담자가 유발하는 대인관계 양상 또는 내담자 특성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이다(Schwartz et al., 2007), 하지만 Lane(1986)에 따르면, 상담자의 세계관, 인종·민족·젠더에 대한 태도, 정치·종교·도덕적 견해 등과 같은 요인들도 역전이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본다면, 상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화 경험 역시 역전이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상담자는 역전이 발생에 있어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을 간과한 채 내담자에게 그 원인을 전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넷째, 역전이 반응 중 ‘지배’는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과도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계층 편향성이 높은 상담자들은 사회계층 편향성이 낮은 상담자들에 비해서 중산층의 내담자가 하류층의 내담자보다 주도적이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적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역전이 반응은 중산층에 대한 근면하고 성실한

자수성가형 이미지와도 중첩되며, Cozzarelli, Wilkinson과 Tagler의 연구(2001)에서 밝혀진 중산층에 대한 주된 고정관념 즉,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강한 이미지와도 유사하다. 다시 말해 상담자들이 내적 통제 소재와 내적 책임 소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Sue & Sue, 2003)을 가진 채 내담자를 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내담자의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이 촉발된다는 결과는 기존의 내담자 다양성과 관련된 역전이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iesler, 2001; Schwartz & Wendling, 2003).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중산층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 반응이 실제 상담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방향성과는 별도로 사회계층에 대한 역전이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사회계층 배경에 대한 고려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층 편향성 고집단과 저집단을 점수 분포 상 평균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집단 구분 방식이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기는 하지만, 연구 대상자 중 사회계층 편향성 점수가 중간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자료(N=234)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분류 기준의 임의성 등은 한계로 남아 있다. 추후 연구들을 통해 사회계층 편향성에 대한 적절한 분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날로그 연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Heppner, Wampold, Owen, Thompson, & Wang, 2015).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접수면접지에 기재된 내담자 정보를 근거로 내담자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다문화 상담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실제 내담자와 실제 상담 장면의 활용이 권장된다(Pope-Davis, Liu, Toporek, & Brittan-Powell, 2001).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상 내담자의 성향으로 인하여 특정 역전이 반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자의 사회계층편향성이 내담자 특성과 호소문제에 따라 역전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척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계층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CAP는 서양에서 개발되어 번역된 도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서도 문화적인 타당도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IMI-C의 하위 척도의 낮은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인들과 집단 상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만 활용되었기 때문에 추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낮은 신뢰도에 관해 가능한 설명은 IMI-C 척도가 두 가지 방식 즉, 상담자가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일반화된 타자들이 내담자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두 가지 영역은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강민철, 김수임, 2016), 참여자들이 응답 시 전문적 상담자로서 내담자에 대

한 자신의 경험과 이 내담자에 대한 타인들의 경험을 유추하여 반응해야 하는 혼란감으로 인해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메타 지각에 해당하는 타인들의 지각 영역을 상담자가 지각하는 영역으로 통합하여 상담자 연구에 활용한다면 신뢰도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을 측정했지만, 이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명시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성이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참여자들이 왜곡된 응답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 결과가 참여자들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라는 역할기대나 자기 검열의 영향을 배제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의식적 수준에서 명시적인 차별적 태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이 아닌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를 활용한다면 보다 미묘하고 암묵적인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층 편향성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연령, 피부색 등과 같은 다양성 변인과 관련지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에 따르면, 젠더, 인종, 그리고 계급 등과 같은 권력관계들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 편의 불평등이 다른 한쪽의 불평등을 강화한다(Collins, 1990). 따라서 상담자의 편향성 연구 역시 내담자의 문화적 정체성의 단일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측면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내

담자가 여성으로 제시되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등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여 사회계층 편향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는 먼저,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이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즉, 상담자가 한 개인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편향성이 전문적 활동인 상담에서도 여전히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편향성이 인지적 영역인 내담자 평가와 정서적 측면인 역전이 반응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편향성이 인지와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Dovidio et al., 1996; Fiske, 1998; Mackie & Smith, 1998)을 지지한다. 한편 내담자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으로 인해 내담자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상담자의 편향성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내담자이지만, 사회계층 배경이 조작되면 상이한 역전이 반응이 유발된다는 결과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 역시 맥락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상담 관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전이에 대한 Kernberg의 전체론적 접근에서는 자칫하면 상담자의 모든 반응을 내담자 문제와 관련 시킴으로써(Gelso & Hayes, 1998)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편향성을 인식할 필요를 면피시킨다. 이는 상담자가 문화적 “고치(cocoon)” (Wrenn, 1962, p. 447)가 되도록 조장하여 자신의 문화적 규범이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여기게 만든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 자신을 가치중립적이라고 여기며 상담과정은 문화나 이데올로기의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진

다는 상담자들 사이의 통념(Kearney, 1996; Strawbridge, & Woolfe, 1996)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란 주제를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 동안 사회계층은 사회학의 주요 연구 주제로서 거시적 수준으로만 다뤄져 왔었고, 심리학에서는 단순히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과 같은 지표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복미권을 중심으로 사회계층 인식의 주관성(Liu et al., 2004) 즉, 사회계층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경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이나 계층차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는 서구 중심의 상담 접근의 영향으로 인해 내담자 문제를 주로 심리내적 측면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문제의 원인에서 문화나 사회정치적 요인들을 간과시키며 개인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경구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심리학 분야의 대중서적들이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맥락과 배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대의 인간 경험에 보편타당한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담자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심리내적인 측면과 함께 내담자가 속해 있는 구조와 환경에 대해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조나 맥락의 중요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인 사회계층에 대해

새롭게 조명했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세 번째,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사회계층 편향성의 영향은 사회계층이 내담자 다양성의 한 측면이자 상담자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국내 다문화 상담의 개념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되어왔다. 흔히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인인을 떠올리게 되고, 다문화 상담 역시 외국 이주민 상담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2008년 정부가 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또는 국제결혼 가정 대상 복지서비스 사업들이 ‘다문화 상담’이라고 통칭되며 대중적 각인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협소한 의미의 ‘문화’와 개념적으로 부정확한 ‘상담’이란 두 용어의 결합으로 인해 국내에서 다문화 상담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그 의미가 희석되고 변질된 채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의 내담자의 다양성 및 하위문화에 대한 상담자의 편향성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동성애자(서영석 등,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인 ‘하위문화 상담’ 연구의 93%가 이민자와 이민자 지원에 국한 되어 있다는 사실(김춘희, 손은령, 2014)은 그간 사용된 ‘다문화’라는 의미의 협소성을 보여준다. 이제 다문화적 관점은 단순한 피부색의 차이를 벗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계층,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상담 실무와 연구에 있어서 다양성과 관련된 이슈를 지닌 내담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에 상담심리학자들이 암암리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내담자의 사회적 정체성 중의 하나인 사

회계층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주제를 보다 확장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철 (2014). 집단상담에서의 대인관계 지각이 치료적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민철, 김수임 (2016). 대인관계 반향메시지를 통한 집단원간 전이 분석: 사회관계모형(SRM)을 기반으로. 한국상담학회, 17(1), 169-186.
- 김창대, 김수임, 강민철, 김영근 (2012).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I-C)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3(4), 1881-1901.
- 김춘희, 손은령 (2014).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6), 2209-2223.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 박미정 (2002). 내담자의 자기공개와 성별이 상담자의 내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3).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상우 (2018a).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상우 (2018b).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01-130.
-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 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손은정, 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 (1999). 권위주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19-221.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 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15). 권위주의 성격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8(3), 133-151.
-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2018).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_Category=1에서 검색.
- 최은영 (2002). 상담자 성 고정관념이 내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 psych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03). Guidelin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training, research, practice, and organizational change for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58*(5), 377-402.
- Arredondo, P., Toporek, R., Brown, S. P., Jones, J., Locke, D. C., Sanchez, J., & Stadler, H. (1996). Operation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4*(1), 42-78.
- Balmforth, J. (2009). 'The weight of class': Clients' experiences of how perceived differences in social class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affect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7*, 375-386.
- Bamgbose, O., Edwards, D., & Johnson, S. (1980). The effects of race and social class on clinical judg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2), 605-609.
- Bäckström, M., & Björklund, F. (2007). Structural modeling of generalized prejudice: The role of social dominance, authoritarianism, and empathy.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8*(1), 10-17.
-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houdhuri, D. D., Santiago-Rivera, A. L., & Garrett, M. T. (2012). *Counseling & diversity*. Belmont, CA: Brooks/Cole.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n.
- Colbow, A. J., Cannella, E., Vispoel, W., Morris, C. A., Cederberg, C., Conrad, M., ... & Liu, W. M. (2016). Development of the Classism Attitudinal Profile (C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5), 571.
- Collins, P. H. (199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Boston: Unwin Hyman.
- Cook, J. M. (2017). Social class bia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Counselor Preparation and Supervision, 9*(1). Retrieved from <https://doi.org/10.7729/91.1167>
- Cook, J. M., & Lawson, G. (2016). Counselors' social class and socioeconomic statu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4*(4), 442-453.
- Cozzarelli, C., Wilkinson, A. V., & Tagler, M. J. (2001). Attitudes toward the poor and attributions for pover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 207-227.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
- D'Andrea, M., & Daniels, J. (2001). Respectful counseling: An integrative multidimensional model for counselors.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pp. 49-7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iemer, M. A., & Ali, S. B. (2009). Integrating social class into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and practice im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247-265.
- Dougall, J. L., & Schwartz, R. C. (2011). The influence of client socioeconomic status on psychotherapists' attributional biases and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5*(3), 249-265.
- Dovidio, J. F., Brigham, J. C., Johnson, B. T., & Gaertner, S. L. (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C. N. McCrae, C. Stangor, & M. Hewstone (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pp. 276-319). New York: Guilford.
- Dru, V. (2007).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Effects of various self-categorization cond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6), 877-883.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92.
-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357-411). New York: McGraw-Hill.
- Franklin, D. (1986). Does client social class affect clinical judgment?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7*(7), 424-432.
- Garb, H. N. (1997). Race bias, social class bias, and gender bias in clinical judgment.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4*(2), 99-120.
- Gelso, C. J., & Hayes, J. A. (1998).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Graff, H., Kenig, L., & Radoff, G. (1971). Prejudice of upper class therapists against lower class patients. *Psychiatric Quarterly, 45*(4), 475-489.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Heitler, J. B. (1973). Preparation of lower-class patients for expressive group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2), 251.
- Heppner, P. P., Wampold, B. E., Owen, J., Thompson, M. N., & Wang, K. T. (2015). Analogue research: Maximizing experimental control. In K. T. Wang (Ed.), *Research design in counseling* (4th ed.) (pp. 314-330) Boston: Cengage Learning.
- Howell, J. M., & Highlen, P. S. (1981). Effects of client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counselor experience on counselor verbal behavior and perce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86.
- Hutchison, B. (2011). The influence of perceived povert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school counselor conceptualization.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4*(2), 203-220.
- Javier, R. A., & Herron, W. B. (2002). Psychoanalysis and the disenfranchised: Countertransference issues. *Psychoanalytic Psychology, 19*(1), 149-166.
- Javier, R. A., Herron, W. B., & Yanos, P. T. (1995). Urban poverty, ethnicity, and

-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4(3), 219-235.
- Jensen, B. (1997, June). *Becoming versus Belonging: Psychology, Speech, and Social Class*. Paper presented at the Working Class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Youngstown, OH.
- Kearney, A. (1996). *Counseling, class and politics: Undeclared influences in therapy*. Manchester: PCCS Books.
- Kiesler, D. J. (1987). *Research manual for the Impact Message Inventory*.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iesler, D. J. (2001). Counselor countertransference: In search of common themes and empirical refer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In Session: Psychotherapy in Practice*, 57(8), 1053-1063.
- Lane, P. M. (1986).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Definitions of terms. In A. C. Meyers (Ed.), *Between analyst and patient, new dimensions in countertransference and transference* (pp. 237-256). NJ: The Analytic Press.
-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2nd e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 Lee, V., & Burkam, D. (2002). *Inequality at the starting gate: Social background differences in achievement as children begin school*.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Liu, W. M. (2011). *Social class and the classism in the helping professions*. Washington, DC: Sage.
- Liu, W. M., Soleck, G., Hopps, J., Dunston, K., & Pickett, T. (2004). A new framework to understand social class in counseling: The social class worldview model and modern classism theor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2), 95-122.
- Lopez, S. R. (1989). Patient variable biases in clinical judgment: Conceptual overview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184-203.
- Lott, B. (2002). Cognitive and behavioral distancing from the poor. *American Psychologist*, 57(2), 100-110.
- Lucal, B. (1994). Class Stratification in Introductory Textbooks: Relational or Distributional Models?. *Teaching Sociology*, 22(2), 139-150.
- Lund, C., Breen, A., Flisher, A. J., Kakuma, R., Corrigall, J., Joska, J. A., Swartz, L. & Patel, V. (2010). Poverty and common mental disorder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71(3), 517-528.
- Luthar, S. S. (2003). The culture of affluence: Psychological costs of material wealth. *Child Development*, 74(6), 1581-1593.
- Mackie, D. M., & Smith, E. R. (1998). Intergroup relations: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5, 499-529.
- Myers, H. C. (1986). *Between analyst and patient, new dimensions in countertransference and transference*. NJ: The Analytic Press.
- Perez-Foster, R. (1999). An intersubjective approach to cross-cultural clinical work.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69, 269-302.
- Pope-Davis, D. B., & Coleman, H. L. (2001).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Thousand Oaks, CA: Sage.

- Pope-Davis, D. B., Liu, W. M., Toporek, R. L., & Brittan-Powell, C. S. (2001). What's missing from multicultural competency research: Review, introspection, and recommendatio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2), 121-138.
- Raizada, R. S., & Kishiyama, M. M. (2010).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brain development, and how cognitive neuroscience may contribute to leveling the playing field.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4*, 3.
- Reardon, S. F. (2011). The widening academic-achievemen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New evidence and possible explanations. In G. J. Duncan & R. M. Murnane (Eds.), *Social inequalities and educational disadvantag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Rice, A. J., Colbow, A. J., Gibbons, S., Cederberg, C., Sahker, E., Liu, W. M., & Wurster, K. (2016). The social class worldviews of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30*(4), 415-440.
- Ridley, C. R. (2005). *Overcoming unintentional racism in counseling and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to intentional interventio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Rogers, C. R.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er, E., & Hayes, J. (2002). Therapist as subject: A review of the empirical countertransference litera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3), 264-270.
- Schwartz, R. C., Smith, S. D., & Chopko, B. (2007). Psychotherapists'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toward clients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schizophrenia: An empirical test of theor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1*(4), 375.
- Schwartz, R. C., & Wendling, H. M. (2003).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toward specific client populations: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Reports, 92*, 651-654.
- Settin, J. M., & Bramel, D. (1981). Interaction of client class and gender in biasing clinical judg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3), 510-520.
- Sherif, M., Harvey, O. J., White, B. J., Hood, W. R., & Sherif, C. W.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OK: University Book Exchange.
- Smith, L. (2005). Psychotherapy, classism, and the poor: Conspicuous by their absence. *American Psychologist, 60*(7), 687-696.
- Smith, L., Allen, A., & Bowen, R. (2010). Expecting the worst: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poverty and misbehavior. *Journal of Poverty, 14*(1), 33-54.
- Smith, L., Li, V., Dykema, S., Hamlet, D., & Shellman, A. (2013). "Honoring somebody that society doesn't honor": Therapists working in the context of pover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2), 138-151.
- Smith, L., Mao, S., Perkins, S., & Ampuero, M. (2011). The relationship of clients' social class to early therapeutic impression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4*(1), 15-27.
- Smith, T. W. (1987). That which we call welfar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sweeter: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question wording on

- response patterns. *Public Opinion Quarterly*, 51(1), 75-83.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 Strawbridge, S., & Woolfe, R. (1996). Counselling psychology: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R. Woolfe & W. Dryden (Eds.), *A handbook of counselling psychology* (pp. 605-629). London: Sage.
- Sue, D. W., & Sue, D. (1977). Barriers to effective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20-429.
- Sue, D. W., &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Thompson, M., Diestelmann, J., Cole, O., Keller, A., & Minami, T. (2014). Influence of social class perceptions on attributions among mental health practitioners. *Psychotherapy Research*, 24(6), 640-650.
- Thompson, M. N., Cole, O. D., & Nitzarim, R. S. (2012). Recognizing social clas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A grounded theory exploration of low-income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2), 208-221.
- Thompson, M. N., Nitzarim, R. S., Cole, O. D., Frost, N. D., Stege, A. R., & Vue, P. T. (2015). Clinical experiences with clients who are low-income: Mental health practitioners' perspectiv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5(12), 1675-1688.
- Tryon, G. S. (1999). Counseling dropout relative to client attractiveness, disturbance, and expected number of session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2(3), 285-291.
- Umbenhauer, S. L., & DeWitte, L. L. (1978). Patient race and social class: Attitudes and decisions among three group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omprehensive Psychiatry*, 19(6), 509-515.
- Wilson, J. P., Lindy, J. D., & Raphael, B. (1994). Empathic Strain and Therapist Defense: Type I and II CTRs. In J. P. Wilson & J. D. Lindy (Eds.), *Countertransference in the Treatment of PTSD* (pp. 31-61). NY: Guilford.
- Woo, K. H., Ghorayeb, S. H., Lee, C. K., Sangha, H., & Richter, S. (2004). Effect of patient socioeconomic status on perceptions of first- and second-year medical students.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0(13), 1915-1919.
- Wrenn, C. G. (1962). The culturally encapsulated counselor.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 444-449.
- Yeung, W. J., & Conley, D. (2008). The Black-White achievement gap and family wealth. *Child Development*, 79, 303-324.
- Zhang, Q., & Wang, Y. (2004). Socioeconomic inequality of obesity in the United States: Do gender, age, and ethnicity matter? *Social Science & Medicine*, 58, 1171-1180.

원 고 접 수 일 : 2019. 08. 2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04

계 재 결 정 일 : 2019. 12. 02

Counselors' Evaluations of Clients and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based on Counselors' Social Class Biases and Clients' Social Class Backgrounds

Sang-Wu Pyu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counselors' evaluations of clients and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based on counselors' social class biases and clients' social class backgrounds. Two intake forms for mock clients with distinct backgrounds were presented to 382 counselors, whose evaluations of the mock clients and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unselors' evaluations and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the level of bias. Counselors with high bias evaluated clients less favorably and experienced more 'dominant' and 'hostile'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However, counselors' evaluation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ased on client background.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unselors' bias and clients' background. An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for the 'dominance' countertransference response. Counselors with high levels of bias appeared to assume that middle-class clients were more dominant than lower class clients, as compared to counselors with low levels of bia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multicultural counseling, bias, social class bias, evaluation on clients, countertransference

부록 1: 접수면접지 (중산층 조건)

당신은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자입니다.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담자의 접수면접지입니다.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현숙 (여, 42세)

직업: 주민센터 공무원 (대졸)

가족관계 남편 회사원 (44세, 대졸), 아들 (14세, 중2)

주소: 양천구 목동 928 목동건영아파트 107-506

- 주호소문제: 화가 너무 많이 남.
- 행동관찰: 보통 체형에 긴 파마머리를 묶음. 화장기 없고 전반적으로 피곤해보임. 예약시간보다 5분 가량 늦게 상담실에 왔으며 담배냄새가 남. 눈빛이 강하며 말속도가 빠르고 목소리가 큰 편. 접수면접자가 질문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감반응을 하면 “내 사정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함.
- 내용 요약: 남편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심. 주로 저녁에 반주 삼아 한잔씩 한다고 하는데 기본이 소주 두 세병을 먹고 음. 집에 와서는 곧바로 잠들기 때문에 얼굴 보는 시간이 하루 한 시간도 안됨. 술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수만 번도 더해서 신물이 남. 그럴 때마다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지만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먹고 음. 사람 말 무시하는 것 같고 오늘은 흑시나 하지만 역시나가 반복됨.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접수자의 질문에 “좀 췌게 한다”고 함. 말로 하면 안 듣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몸싸움을 하기도 함. 부부 싸움하다가 불 지르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감. 아들도 걱정인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함. 일마치고 파김치 돼서 집에 가면 본 척만 척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루 몇 시간은 기본인 거 같음. 주말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자해도 집에서 게임할 생각으로 안가겠다고 함.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런 건지 이해가 안가고 커서 뭐가 되려는 지 한심하고 답답함. 다른 집 애들은 알아서 숙제도 하는데 아들은 챙기지 않으면 주로 안해감. 두 남자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음. 누구는 월급날 기다리며 아등바등 사는데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어디다 내다 버리고 싶음. 먹고 사는 걱정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집까지 떠안아야 하나 싶음.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나 싶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고 오죽하면 이런데(상담소)까지 와서 하소연하나 싶음.
- 상담에서 바라는 바: 남편 술 끊게 하고 싶고 아들이 게임을 좀 그만하게 하고 싶음.

부록 2: 접수면접지 (하류층 조건)

당신은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자입니다.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담자의 접수면접지입니다.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현숙 (여, 42세)

직업: 식당 보조 (고교중퇴)

가족관계 남편 무직 (44세, 고졸), 아들 (14세, 중2)

주소: 금천구 독산동1동 333-14

- 주호소문제: 화가 너무 많이 남.
- 행동관찰: 보통 체형에 긴 파마머리를 묶음. 화장기 없고 전반적으로 피곤해보임. 예약시간보다 5분 가량 늦게 상담실에 왔으며 담배냄새가 남. 눈빛이 강하며 말속도가 빠르고 목소리가 큰 편. 접수면접자가 질문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감반응을 하면 “내 사정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함.
- 내용 요약: 남편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심. 주로 저녁에 반주 삼아 한잔씩 한다고 하는데 기본이 소주 두 세병을 먹고 음. 집에 와서는 곧바로 잠들기 때문에 얼굴 보는 시간이 하루 한 시간도 안됨. 술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수만 번도 더해서 신물이 남. 그럴 때마다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지만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먹고 음. 사람 말 무시하는 것 같고 오늘은 흑시나 하지만 역시나가 반복됨.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나냐는 접수자의 질문에 “좀 췌게 한다”고 함. 말로 하면 안 듣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몸싸움을 하기도 함. 부부 싸움하다가 불 지르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감. 아들도 걱정인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함. 일마치고 파김치 돼서 집에 가면 본 척만 척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루 몇 시간은 기본인 거 같음. 주말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자해도 집에서 게임할 생각으로 안가겠다고 함.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런 건지 이해가 안가고 커서 뭐가 되려는 지 한심하고 답답함. 다른 집 애들은 알아서 숙제도 하는데 아들은 챙기지 않으면 주로 안해감. 두 남자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음. 누구는 월급날 기다리며 아등바등 사는데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어디다 내다 버리고 싶음. 먹고 사는 걱정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집까지 떠안아야 하나 싶음.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나 싶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고 오죽하면 이런데(상담소)까지 와서 하소연하나 싶음.
- 상담에서 바라는 바: 남편 술 끊게 하고 싶고 아들이 게임을 좀 그만하게 하고 싶음.